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
김수근 회장



謹賀新年

전국의 양육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 속에 병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양육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양육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양육 산물의 소비가 저하되어 양육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지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양육인들이 지난 과거의 어려움을 밀거름 삼아 그 뿌리를 새롭게 다지며 다시금 우리 양육 산업이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 경기가 조속히 활기를 찾아 녹용, 사슴고기 그리고 녹중탕 등 양육 산물 소비가 원활해져 양육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실질경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육인 여러분!

우리협회는 올해부터 “한국양육”을 다시 격월간 잡지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월 15일자로 발간하는 회지는 잡지전문 제작업체의 편집으로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회원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사랑받는 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는 양육인의 권익과 양육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나름대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육업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양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제도권 내에 양육업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지난해 양육 업계 최초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슴질병방역순회교육을 전

다시 한번
의심하게
기쁨마련에
최선을
다할수있게

국 3개 권역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양록 산업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임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림부의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한 사슴이표장착 및 개체등록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제1단계로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엘크 수사슴부터 녹용 절각시기에 실시하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사슴에 이표를 장착 하여 개체 등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양록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양록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양록산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시켜야 할 산업임을 인정해 주는 사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양록인들의 참여와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양록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양록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헛되지 않음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때 또 다른 지원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슴이표장착 및 개체등록사업에 대한 양록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녹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자율적인 양록 자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언론매체에 소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자조금사업의 증대로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양록산물이 더욱 안전하고 청정한 기반을 확보하면서 일반 축종과 마찬가지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산 양록산 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조기정착과 진일보한 양록 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리 전 양록 인은 물론 관련 단체가 하나 되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회의 얼굴인 **“한국양록”** 회지가 양록인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양록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병술년 새해에도 양록인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